

‘강진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 기반 ‘순환 경제’ 실현

반값여행·축제 효과·매출 상승세
관광객 유입, 소비 확대 긍정 영향
지속 실적 관찰 등 유통 동향 파악
“농업 소득증대·지역경제 활성화로”

강진군이 관내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로컬푸드 부문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농협 파머스마켓의 지난 3월 마트 매출은 53억7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반면, 로컬푸드 매출은 9억8600만원으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여파로 전체 소비는 감소했지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는 것이 강진군의 설명이다.

또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마트와

로컬푸드 모두 매출 상승세를 기록했다. 마트는 61억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로컬푸드는 3억9700만원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매출 증가의 원인은 ‘반값 관광’ 시책과 각종 지역 축제를 통한 방문객 증가가 꼽혔다. 관광객 유입과 소비 확대가 맞물리면서 지역 유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판매

실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통 동향을 파악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들이 정성 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체계는 강진 농업의 핵심 기반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이 살아있는 강진, 소비자가 만족하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담양군 ‘스마트경로당’ 운영 오락·교육용 키오스크 기기 설치

담양군은 4일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경로당은 관내 12개 대표 경로당 및 향촌노인복지관 스튜디오에 원격 화상 시스템과 오락·교육용 키오스크 기기를 설치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거리가 멀어 문화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해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은 이를 통해 경로당이라는 장소가 기존의 기능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은 스마트경로당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내고 다른 경로당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교육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해외여행객 대상 ‘홍역 예방’ 당부 나주시보건소

나주시보건소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백신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3일 나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강한 전염성을 가진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될 경우 고열, 전신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1세 미만의 영아가 감염될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생후 6~12개월 영아는 출국 전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중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입국 후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역관에게 즉시 건강 상태를 신고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주=김용의 기자



지난 2일 광양제철소 백운대 둘레길로 벚꽃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소 백운대로 벚꽃 보러 오세요”

광양제철소 인근 백운대에 벚꽃이 만개하면서 금호동이 벚꽃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3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백운대 둘레길과 주택단지에서 심어진 4365그루의 벚나무들이 화려한 장관을 이루며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이에 광양제철소는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백운대 주변 벚꽃길 중 백운체력단련장 삼거리에서 금호그라운드골프장 삼거리 사이 도로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차량 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차량 통제원을 곳곳에

배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저녁에는 벚꽃길과 인근 인공폭포에 경관조명을 점등해 아름다운 야경도 자랑한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백운대 벚꽃길은 매년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전산 장비 무상 양여’ 나눔 실천 목포해경, 노트북 등 총 50점

목포해양경찰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사육이 가능한 노트북 7대, 데스크탑 15대, 모니터 28대 총 3종 50점을 한국장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 무상으로 양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무상양여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전산 장비 중 교체 주기가 도래했지만,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불용 처리 대상 노트북을 활용한 것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불용 물품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보안 문제에 민감한 전산장비의 특성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소를 천공하는 방법으로 보안 조치도 마무리했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작은 나눔이지만 정보화 기기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농협광주본부, 영농지원 ‘행복농촌봉사단’ 발대

농촌일손돕기 동참 분위기 확산

농협광주본부는 지난 2일 금곡마을에서 범농협 광주본부 ‘행복농촌봉사단’ 영농지원발대식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농지원 총력 결의와 농촌일손돕기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이선재 광주여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내 농협 조합장 및 시너지협의회, 농협봉사단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농산물 꾸러미 400세트를 전달했으며 광주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농촌일손돕기 결의를 다지고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동참을 호소했다.

‘행복농촌봉사단’은 영농철인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광주여자대학교와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대



지난 2일 농협광주본부가 ‘행복농촌봉사단’ 영농지원발대식을 열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학생들의 재능기부 및 농촌봉사 참여를 통해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현호 농협광주본부 본부장은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광주본부는 연중 원활하고

안정적인 농촌 일손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만5000명의 농촌인력중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촌일자리 참여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농협광주본부 또는 인력중개센터 운영농협인 대촌농협, 동곡농협, 평동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조진용 기자

힐링 여행 ‘쉽 투어’ 버스 운행 영광군, 19일부터 11월1일까지

영광군이 역사·문화·자연 명소와 함께 하는 힐링 여행 일환으로 ‘영광 쉽 투어’를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

3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쉽 투어는 올해부터 기존 인기코스인 테마식물원, 물명십터, 향교를 추가해 3개 코스로 확대, 관광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영광 쉽 투어는 오는 19일부터 11월1일까지 매주 토요일, 바다랑(A)·숲이랑(B)·문화랑(C)을 순차적으로 운행하며 광주 유스퀘어(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9시30분, 광주 송정역 시외 버스 정류장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한다.

바다랑(A)은테마식물원, 숲쟁이꽃동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백수해안도로를 숲이랑(B)은 불갑사, 테마공원, 물명십터, 숲쟁이꽃동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물무산행복숲 향토길을 운행한다.

이번에 추가된 문화랑(C)은 숲쟁이공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매간당 고택, 물무산행복숲과 향교를 둘러보며 영광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다.

자연과 함께 잠시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풍경을 돌아보면서 점심으로 제공되는 굽비 한정식으로 영광의 맛도 느껴볼 수 있다. 1인 이용 요금은 버스 탑승료·중식·간식비 포함 3만원이며 만 5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나라고속관광(062-672-9090)에 전화 예약을하거나 영광군 누리집(문화관광·영광 쉽·투어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예약도 할 수 있다. 1인이 대표로 여러 명 예약도 가능하며 예약은 투어 전날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